



코스피 2242.88 (+9.43)	코스닥 766.75 (-1.10)
금리 (미국 3년) 1.76 (+0.03)	환율 (원/달러) 1133.10 (-6.30) (15일)



[금융]
롯데카드·손보
본업찰 임박
한화·하나 등 혈투
04

아시아나, 금호 품 떠난다

금호그룹 “이사회서 매각 결정”
새 주인에 SK·한화·애경 등 거론
금호석화·미래에셋도 참여 가능성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매각 수순을 밟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놓고 국내 기업들간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2·3·8면>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산업)은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발표했다.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의 미래발전과 아시아나항공 1만여 임직원의 미래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수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는 현

데 롯데, CJ, 신세계그룹 등도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전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 11.98% 보유)과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미래에셋도 인수전의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에 합의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호산업은 실사 및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후 33.47%에 이르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구주매출(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일반에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등의 매각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그린재킷’
타이거 우즈가 1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CC에서 막을 내린 미프로골프(PGA) 투어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 그린재킷을 입고 트로피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즈는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 14년 만에 마스터스 우승자가 입는 그린재킷을 다시 입었다. /뉴시스

대우건설 인수가 패착 13년 세월도 지우지 못한 ‘부실 꼬리표’

대우건설 등 무리한 인수전에
2010년 워크아웃 등 고비넘겨
‘왕자의 난’에 그룹 분열·쇠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오랜 자금난 때문이다. 위기 때마다 여러가지 수단으로 급한 불을 꺼왔지만, 채권단도 더 이상 박삼구 회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금호산업 위기는 무리한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2000년대 후반 무리하게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곳곳에 바다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락의 신호탄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였다. 당시 자산이 3조원을 채 넘지 못했던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지분 72.1%를 시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6조4255억원에 인수했다. 실제 투자한 금액은 1조6000억원에 지분 18% 수준으로, 나머지는 재무 투자자들 도움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이었다. 2009년 12월 15일 대우건설 주가가 기대 이하일 경우 이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준다는 ‘풋백옵션’을 걸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금호산업은 유상감자와 자사주 소각 등 ‘제살 깎아먹기’ 전략을 이어갔다.
뒤를 이은 대한통운 인수 역시 무리수로 작용했다. 2008년 대한통운 인수에 4조원을 쏟아부었던 탓에 금호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금호산업은 자본잠식에 빠졌

고, 금호타이어·금호고속과 함께 2010년 산업은행으로 넘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에 지분 51%를 넘기고 나머지는 매각했다. 대한통운도 2012년 CJ에 팔려가게 됐다. 그러나 이후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 꿈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무리한 인수전을 재개했다. 2015년부터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을 다시 품는데 성공했고, 금호타이어까지 되찾으려 자금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이런 중에 아시아나항공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밀리는 장사를 이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인기 단거리 노선을 빠르게 사세를 확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난을 겪어왔다.
2005년 일찌감치 에어부산을 설립하고 동남권 LCC 시장을 선점하긴 했지만, 수익이 높은 수도권발 국제선을 운영하지 못한 탓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2016년 뒤늦게 에어서울을 론칭했지만, 이미 늦은 출발이라는 평가다. 2012년부터 흑독한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2016년 흑자 전환에 성

공하긴 했지만, 별다른 경영 전략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대한항공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제고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중장거리 경쟁력 강화라는 말만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왕자의 난’이 금호아시아나 물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금호그룹 재건 역시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이 33.5%, 금호석화가 1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고 있으며, 오랜 경영권 분쟁 끝에 2015년 계열에서 분리됐다.
금호석화는 금호타이어가 중국더블스타에 매각될 당시에도 인수 후보자로 거론됐을 만큼 사업 연관성이 높고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도 금호석화는 꾸준히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호석화가 그룹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면 금호그룹 재건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김재용 기자 juk@

“국내 인보사도 ‘신장세포’ 주성분 바뀔경위 추가조사”

식약처, 세포주 검사 중간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보사케이주’의 일부 성분이 미국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이 293세포의 혼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293세포의 혼입 시기와 중앙유발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해 인보사의 품목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인보사도 신장세포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인보사의 수거·검사 결과 형질전환세포(TC)의 주성분이 허가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로 이루어진 3대 1로 섞여 무릎 관절염에 주사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 이 TC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293유래세포로 확인되며 판매가 중지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된 인보사에도 293유래세포가 쓰였는지를 조사해 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개발 당시 TC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판단

했다. 회사측이 신장세포의 혼입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TC를 조사한 결과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하고 ▲DNA 지문분석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한 점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현재 시판중인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뀔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측에는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뀔 경위와 과학적 근거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연골세포라고 허가 신청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품목허가 여부 언제 결정하나
식약처는 이제부터 293세포의 혼입이 최초 개발단계부터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며 개발 과정 중에서 세포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5월 말까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마스터 셀뱅크(MCB)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선다. 시판 중인 인보사의 신장세포가 최초 개발 단계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의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